

# 報 道 資 料

이 자료는 2004년 2월27일(금)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참여정부 1주년 국제회의 개최

- 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동북아의 변화하는 리더십하에서의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국제회의가 2004. 2. 27(금)~2. 28(토)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됨.
- 2월 27일 오전에는 킬러 IMF총재, 존스톤 OECD 사무총장, 호크 前 호주총리 등이 참석하는 원탁회의가 열리고
  - 오후에는 세계가 보는 한국경제(1세션), 경제선진화의 방향과 정책과제(2세션)의 주제하에 정운찬 서울대총장, 김중수 KDI 원장의 사회로 Burton IMF 아태국장, Coulton Fitch 아시아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전문가회의가 열릴 예정임.
- 2월 28일 오전에는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3세션)을 주제로 Scalapino교수,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 수지홍(Xu Zhihong) 북경대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회의가 열리며,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Klein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임.
- 본 국제회의와 관련사항은 인터넷([www.newvision.go.kr](http://www.newvision.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회의 당일의 모든 행사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임.

<붙임> 국제회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 등

보도자료 생산 : 국제세미나 준비기획단 (☎ 958-4037)

(단장 장 수만, 사무관 한 승우)

재 정 경 제 부 공 보 관

# 국제회의 개요 및 발표자료 요약 등

I. 행사 개요 .....	3
II. 개최배경 및 의의 .....	7
III. 각 Session별 해설 .....	7
IV. 참석자 이력 .....	13
V. 발표자료 요약 .....	19

## I. 행사 개요

□ “동북아의 변화하는 리더십하에서의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2월 27~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영문명칭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New Vision and Strategy under Changing Leadership in Northeast Asia

□ 본 국제회의는 개회식 및 원탁회의, 세계가 보는 한국경제(1세션), 경제선진화의 방향과 정책과제(2세션),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3세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특별강연으로 구성됨.

□ 이번 국제회의 참석자는 총 24명(해외인사 : 19명, 국내인사 : 5명)임

○ 해외인사 19명 참석

- 국제기구(4)

\* Köhler IMF총재, Johnston OECD 사무총장, Burton IMF 아태국장, McCauley BIS 아태대표부 부대표

- 전직 국가수반 및 정부 고위인사(2)

\* Hawke 前 호주총리, 구로다 일본 내각 특별자문관

- 금융계(4)

\* Anderson AIG 한국/일본회장, Coulton Fitch 국가신용평가 아시아본부장, Schiller S&P 북아시아 대표, Belchere JPMorgan 아시아지역본부장

- 학계(5)

\* Klein 펜실베니아大 교수, Scalapino UC버클리 교수, Xu Zhihong 북경대 총장, Kotov 모스크바 국제경제관계대학장, Hayes Nautilus 연구소장

- 언론계(2)

\* Vatikioti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편집장, Mallet FT 아시아지국장

- 경제계(2)

\* Oberlin Amcham 회장, Stan Gale Gale社 회장

○ 국내인사는 5명

-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 김종수 KDI 원장, 정운찬 서울대총장, 박영상 한양대교수

□ 프로그램

2004년 2월 26일 (목)

19:00~21:00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최, 환영만찬

2004년 2월 27일 (금)

10:00~11:30 개회식 및 원탁회의

인사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기조연설

주제발표: Horst Köhler IMF 총재

Bob Hawke 前 호주 총리

Donald J. Johnston OECD 사무총장

토론사회: Lawrence Klein 펜실베니아大 교수

토 론: 주제발표자

12:00~14:00 김종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주최, 오찬

14:00~15:30 제1세션: 세계가 보는 한국경제

사 회: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발 표: Ronald Anderson AIG 한국/일본회장

Brian Coulton Fitch 국가신용평가 아시아본부장

Michael Vatikioti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편집국장

토 론: David Burton IMF 아태국장

William Oberlin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

Robert McCauley BIS 아태대표부 부대표

15:50~17:10 제2세션: 경제선진화의 방향과 정책과제  
사 회: 김종수 한국개발연구원장  
발 표: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William Belchere JPMorgan 아시아지역 본부장  
토 론: Thomas Schiller S&P 북아시아 대표  
Victor Mallet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지국장  
박영상 한양대 교수

2004년 2월 28일 (토)

09:00~10:30 제3세션: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경제협력  
사 회: Robert Scalapino UC버클리 교수  
발 표: 수 지홍 북경대학교 총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총리내각 특별자문관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  
토 론: Stan Gale 게일 회장  
Peter Hayes 노틸러스 연구소장  
Gennady Kotov 모스크바 국제경제관계대학장

11:00~12:00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특별강연  
Lawrence Klein 펜실베니아大 교수

12:00~12:30 폐회식  
회의결과보고: 김종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폐 회 사: 고건 국무총리

12:30~14:00 고건 국무총리 주최, 오찬

## II. 개최배경 및 의의

-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외 지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코자 함.
-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동북아의 증대되는 역할 속에서 한국의 좌표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제고와 우리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IMF, OECD등 국제기구 지도자와 Hawke 前 호주총리, Klein교수, 수지홍 북경대총장 등 세계적인 지도자·석학들과의 토론을 통해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을 공동모색코자 함.

## III. 각 세션별 해설

### Session I : 세계가 보는 한국경제

#### 1. 주제선정의 의의

-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투명하고 세계화된 선진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음.
- 세계적 석학과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토론을 통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

## 2. 주요 예상논의

- 참여정부 1년간 대내외적인 애로요인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평가
- 기업구조조정, 금융·재정정책 등에 대한 외국의 시각이 소개될 전망
-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좌표와 급성장하는 중국경제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예상됨.
-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세계화, 개방화와 FTA 등 지역협력 추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임.

## 3. 기대효과

- 한국의 경제지표와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현안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
- 국제기구, 금융계, 신용평가회사, 언론계 등 다양한 방면에 종사하는 연사들이 참여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세계적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을 통하여 많은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 주제선정의 의의

- 지난 1년간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머무르는등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
- 경제선진화의 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 2. 주요 예상논의

-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 국가균형발전 등 경제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됨.
- 한국과 선진국의 경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논의하고 한국경제의 선진화 방향과 세부전략이 제시될 것임.
- 우리나라가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쌍무적, 지역적, 다자적 무역협상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 세계화와 정보화등 세계정치경제의 변화를 수용하고 한국경제를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임.

### 3. 기대효과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참여정부의 정책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한단계 차원 높은 경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한국측 발표자와 외국 금융계의 시각을 통해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대두되고, 신용평가사, 언론사 등에서 온 국내외 참가자의 활발한 토론이 예상됨.

## 1. 주제선정의 의의

- 현재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적 연관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국, 일본 등 우리가 속한 동북아권의 여러 나라들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 및 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통합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방안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 2. 주요 예상논의

- 동북아 경제통합으로 동북아의 번영은 물론 역외 지역의 세계 주요기업까지도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축이 될 전망에 대해 논의가 예상됨.
- 최근 세계적인 지역블록화의 추세와 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동북아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와 금융에 관한 협력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ASEAN국가까지 채권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될 것임.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선결과제이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동북아시아 국가의 발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의가 예상됨.
- 이와 더불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고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를 세계로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임.

### 3. 기대효과

- 세계경제 속에서 동북아의 비중 확대에 따른 국제협력의 강화 방안은 동북아의 경제성장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전망
- 발표자인 수지홍 북경대 총장, 구로다 자문관, 배순훈 위원장 으로부터는 동북아의 경제, 금융, 교육등의 생생한 경험과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제안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됨.

## IV. 참석자 이력

### 개회식 및 원탁회의

####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

독일 재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쳐 90년 재무부 국제금융담당 차관으로서 유럽경제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협상을 주도하고 동서독의 통합 작업에도 참여. 세계은행 독일대표 부총재(Deputy Governor),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를 거쳐 2000년 제8대 IMF총재에 취임

#### 밥 호크 前 호주 총리

호주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로서 58년 호주 무역노동조합 평의회 연구원을 시작으로 평의회 회장, 호주노동당 총재, 하원의원 등 다양한 노조운동과 정치활동을 수행. 82년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이듬해 3.3선 거의 승리로 제26대 호주총리에 취임. 정치지도자로서 노동자, 토착민 등 약자와 빈민층을 대변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능숙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여 경제개혁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

#### 도널드 존스톤 OECD 사무총장

캐나다 재무부장관, 국무부 경제지역개발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96년 6월 OECD 사무총장으로 취임함. 캐나다에서 우수한 법률회사를 창업하고 몬트리올 McGill 대학에서 재정법을 강의. 베스트셀러인 정치회상록을 비롯하여 조세, 법률, 공공행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니아대 프랭클린 석좌교수, 198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58년부터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시카고대, 미시건대, 옥스퍼드대에서도 연구와 강의. 국가경제, 지역경제, 세계경제에 대한 거시 계량경제 모형을 개발한 공로로 198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후 와튼계량경제예측학회를 설립하여 세계거시경제학계를 주도

## 제 1 세션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미국 프린스턴대학 경제학박사. 연구분야는 거시경제, 화폐와 금융시장. 1978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 영국 런던 정경대학 등 교수 역임.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장 역임. 최근 저서로는 『거시경제론』, 『화폐와 금융시장』, 『IMF구제금융이후의 한국경제』 등이 있음.

로날드 앤더슨 AIG 수석부사장 겸 AIG 한국/일본 회장

83년 AIU(AIG의 손해보험회사) 부사장 겸 동남아시아지역 담당부장으로 입사하여 92년 AIU 대외협력담당 수석부사장, 94년 한국/일본 현지법인의 CEO 겸 아시아지역 사장을 거쳐 95년 AIG 수석부사장 겸 AIG 한국/일본 회장으로 근무 중임.

브라이언 켈튼 Fitch사 국가신용평가 아시아본부장

Fitch Ratings에서 한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을 담당하는 책임자임. 99년까지 영국 재무성 경제자문관 및 경제전망의 책임자로서 브라질 등 남미 금융위기전문가로 활동

## 마이클 바티키오티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편집국장

87년 Far Eastern Economic Review의 인도네시아 지국장로 입사하여 말레이시아, 방콕 지국장을 역임하고 2000년부터 Far Eastern Economic Review 편집국장으로 근무 중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해 저술하는 등 아시아 전문가임.

## 데이비드 버튼 IMF 아태국장

영국출신으로 Western Ontario대학 경제학박사. 21년간 IMF에서 근무하면서 최근 6년 동안 아시아태평양국에서 특히 인도, 중국, 필리핀을 담당. 1997년 말 한국의 구조조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세계경제의 위기극복과 안정에 기여한 금융구조조정 전문가임.

## 윌리엄 오버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보잉사 한국지사장

미 공군장교로 예편한 후, 30년간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 중 16년을 한국에서 근무한 한국전문가임. 주로 상용/군용기 및 우주통신 분야를 관장하였으며 2002년 보잉사 한국지사장으로 임명됨. 현재 USO Korea의 사무총장을 겸임.

## 로버트 맥켈리 BIS 아시아태평양지역대표부 부대표

1994년 BIS 입사 전, 13년 동안 뉴욕 연방준비은행 국가신용등급위원회의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하였고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금융과 다국적기업에 대해 강의. 최근보고서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자금흐름 분석, 통화정책 및 중화권 국가의 외화예금 분석 등이 있음.

## 제 2 세션

###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박사. 거시경제정책 및 경제제도 분석의 전문가로서 다수의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대통령 경제비서관, OECD 가입준비사무소장, 한국조세연구원장,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 국가정책 연구 및 학계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수행

###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영국 시티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침. 행시 19회로 재경부 금융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역임.

### 윌리엄 벨쉐어 JPMorgan 아시아지역 본부장

메릴랜드대학 경제학석사. 아시아지역 경제전문가로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자문관을 거쳐, Merrill Lynch의 아시아지역 전무 겸 수석경제학자로서 아시아 경제위기분석을 담당. JPMorgan의 아시아지역 경제 및 시장전략 본부장으로서 아시아경제연구의 핵심인사

### 토마스 쉘러 Standard & Poor's 전무 겸 북아시아 대표

컬럼비아대학 MBA. 87년 S&P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을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근무한 아시아 전문가로서 2000년에 세계시장 개발 및 연구담당 전무로 승진하여 2001년에 S&P 한국/일본의 최고 책임자로 근무 중임.

## 빅터 말레트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 지국장

파이낸셜 타임스에 17년간 근무하면서 파리, 아프리카, 방콕, 중동지역 등에 주재하였으며 파이낸셜 타임스 입사 전에는 로이터통신에 5년간 재직하였고 『The Trouble with Tigers: the Rise and Fall of Southeast Asia』이라는 책을 저술

##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주리대학 신문학박사. 합동통신 기자로 8년간 활동하였으며,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언론정보대학원장, 한국언론학회장을 역임. 저서로는 『매스미디어와 스포츠산업』 과 『경제관련 뉴스의 발전방안-진단과 처방』 등이 있음.

## 제 3 세션

### 로버트 스칼라피노 UC 버클리 립슨 석좌교수

미국내 아시아 문제의 최고 권위자로서, 특히 한국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예견으로 유명. 수십 년간의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대표 기관인 동아시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동아시아 발전에 기여함. 아시아 정치 및 대아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Asian Survey 편집장을 역임

### 수 지홍 북경대학교 총장

식물학과 세포생물학 분야의 권위자로 활동하면서 중국의 자연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끊임없는 혁신, 활력,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북경대학의 일류화를 이끌고 있는 개혁적 과학자임. 중국의 자연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90년 “중국 자연과학 최고상” 을 받는 등 수차례 과학 분야 상을 수상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내각 특별자문관 겸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대학원 교수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재무성 국제금융 차관을 역임하는 등 국제금융과 조세분야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 국제금융 및 조세 전문가로서 동북아 금융협력에 깊은 관심

##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

미국 MIT 대학원 기계공학박사 취득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국 스탠포드대, MIT대 교수로 활동. 대우전자회장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을 역임.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동북아경제중심 구축 및 지역협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구상의 마련에 참여

## 스탠 게일 게일 회장

롤린스 대학 MBA. 73년 Daniel Gale사와 76년 Grubb & Ellis사를 거쳐 85년 게일사의 사장으로 임명. 게일사를 세계적인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시킨 투자전략가로서 강한 리더십과 창의력을 가진 기업가. 현재 송도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피터 헤이에스 노틸러스 연구소장

UC 버클리 에너지자원학 박사. UNEP, ADB, 세계은행, UNDP에서 개발도상국관련 환경 에너지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관련 안보,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 2000년 맥아더 펠로우십 수상

## 젠나지 코토프 모스크바 국제경제관계대학장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MGIMO)중의 하나인 국제경제관계대학원을 졸업하고 수십년간의 교수활동을 거쳐 1995년 본 대학원의 학장으로 취임함. 다양한 국제경제관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면서 국제경제협력, 지적재산권, 국제통상의 전문가로 활동

## V. 발표자료 요약

### [ 원탁회의 주제 발표 ]

#### < 세계화의 기회와 동북아 >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

- 미국과 아시아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소임.
-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 세계화는 아시아와 세계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빈곤 문제가 상존하고 상호의존 심화로 경제적 충격이 파급되는 등 부작용도 있음. 중국, 인도 및 새로운 신흥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져 유연성과 혁신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음.
- 아시아가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세가지 우선순위는 첫째, 아시아국가의 신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체질 강화, 둘째, 아시아 역내국가간 무역 등을 통한 지역 협력, 셋째, 무역 자유화, 도하개발아젠다 등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효율적인 다자간 협력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지만, 미래가 긍정적임.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능력이 요구됨.
- IMF는 세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폭넓은 개혁을 추진 중임. 신흥유망국가 및 선진국가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이 필요.
- 아시아 국가의 성장으로 IMF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시아 국가의 입지는 커질 것으로 전망.

## < 세계평화와 경제선진화 >

밥 호크, 전 호주수상

- 기술 혁명은 삶의 질 향상과 무기 개발로 인한 위기증대의 양면성을 지님.
-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중심의 국제 정치 질서와 9/11 테러 사건 이후 대두되고 있는 국제테러에 대한 위협이 공존.
-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통합과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농업시장 보호, ODA 감소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미국, 유럽은 보다 균형있는 세계경제발전을 위해 개도국을 위한 시장개방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북핵문제해결, 개도국의 발전, 세계평화, 테러방지 등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 발휘가 요구

## 〈 새로운 지평으로 도약하는 한국 〉

존스톤, OECD 사무총장

-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 한국은 세계경제와의 통합으로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비중은 다른 OECD국가들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음. 이는 고부가가치 활동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기업이 경쟁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대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동시에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도 제공.
- 한국은 지식산업에의 투자로 기술집약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됨. 생산성 향상,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증대 등 많은 풀어야 할 과제가 상존.
-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지속적인 지식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대학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기반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대외무역과 투자에 개방적 자세를 지속할 필요.

## [ 제 1 세션 ]

### <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

브라이언 켈튼, Fitch 국가신용평가 아시아 본부장

- 지난 1년은 대내외 경제환경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해로서 이를 기준으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경제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는 한국경제의 활력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최근 몇 년간 강화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임.
- 최근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대외부문에서 찾을 수 있음.
- 수입의 감소와 원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이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의 수출증가세 지속도 주목되어야 할 요인임.
- 경상수지와 함께 자본수지의 흑자기조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2년간은 한국은 채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대내적으로는, 먼저 재정수지 흑자기조의 지속이 여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과 현격히 차별되는 점이라 하겠음.
- 심지어 한국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경예산을 수립·집행했던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음.

-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지속으로 국가부채비율은 외평채 발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하락할 것임.
- 한편, 한국의 기업부문은 그동안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결과, 부채비율이 현격히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기업의 차입경영 자제를 지도해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축소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와 같은 기업부문의 개선은 올해 투자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버팀목이 될 것임.
- 금융부문에서의 개선은 더욱 주목되는 점으로서, 전반적인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제고와 함께 은행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었음.
- 지난해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하여 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는 향후 대외신용도 유지나 성장잠재력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비은행 금융부문의 부실, 금융감독 및 정책조정의 미흡 등이 그러한 취약점들임.
- 최근 신용카드부문의 문제들은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임.

- 신용카드 영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뒤늦은 대응은 물론, 그 대응정책이 심각한 신용축소를 초래하고 결국 민간소비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당국간의 정책조정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최근 LG카드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의지가 퇴색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임.
- 결국 금융시스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클수록 시장원리의 훼손과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성숙한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발전해 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기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수단에 관한 명확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경제정책방향’은 성장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등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 이들 목표들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통해 정부가 하부구조 구축 및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시장개입을 강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

마이클 바티키오티스, FEER 편집국장

- 지난 수년간 지역내 무역의 급신장과 함께 10년 전만 해도 회의적이라고 여겨졌던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대한 비전이 형성되기 시작
- 무역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상호의존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의 무역 대상국으로서 및 한국의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
-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및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큼.
- 오늘 발표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갖는 의미를 점검해 보는 것임
- 결론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등 3국의 경제통합은 각국간 군사 및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각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1) 중국이 경제통합으로 인한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2) 이 지역의 미국, 유럽 등 전통적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통합으로 인해 감소할 것임.
-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한, 중, 일 3국은 장기적으로 EU 및 북미 지역에 대응할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할 목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에 합의

- 한국도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지역구도 하에서 한국이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 구상(Age of Northeast Asia Plan)’을 경제운용의 청사진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 대륙과 일본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임.
- 동북아 지역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초적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무역: 2002년 9월 현재 한국 전체 수출에 대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20.3%를 나타내어 대미수출(20.2%)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
  - \* 산업자원부(MOCIE)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003년 357억달러(추정치)에서 2004년에는 47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2년 한국도 중국 전체 무역규모(4,451억 달러)의 7%를 담당함으로써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3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
- 투자: 투자부문에서 지역내 경제협력 증진추세는 더욱 두드러짐. 무역협회(KITA)에 의하면 2003년 1~11월중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41억달러(대중국 직접투자 전체의 약 8.6%)로서 2002년의 27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 2002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대중국 투자는 약 50%를 차지하여 전통적 제1 투자대상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투자(약 40%)를 상회
- 한국과 중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와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 관광객 방문 및 유학생 교류 측면에서 양국의 상호 협력관계 증가 추세
- 그러나 이러한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증대 추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
- 한국 기업의 급속한 중국진출은 한국내 산업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한·중 경제협력이 증진된다고 하여도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였던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또한 한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인 편향 성향이 향후 한·중 투자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제 2 세션 ]

### <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 비전: 정책 방향과 과제 >

윌리엄 벨쉐어, J. P. Morgan 아시아지역 본부장

- 중국의 급부상, 지속적인 세계 무역과 자본흐름의 통합은 전 세계에 걸쳐 생산자원의 중대한 재배치를 유발함
- 세계적으로는 부의 창출에 있어 막대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로섬(zero sum) 게임은 아님
- 그러나 개도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막대한 단기 조정비용이 발생할 것임
- 한국은 서비스 기반 경제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한 개혁을 필요로 함
- 한국경제가 이제까지 보여온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문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하에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가의 문제
- 유사한 성장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
- 중국의 부상에 따라 경제성장은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짐
-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보다 확대된 개혁, 특히 교육, 노동,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인프라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개혁이 요구됨
- 한국이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서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변화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 성숙한 경제는 농업과 공업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성장의 중심 동인으로 삼고 있음
- 아시아는 선도적 국가들조차도 이러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 모두 뒤쳐짐
- 아시아 일반, 특히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있어 뒤쳐지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기업친화적 규제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
-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변화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 허브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 수출국이 됨을 의미
- 2001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은 각각 GDP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이 34%와 28.4%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5.5%에 불과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인디아, 대만보다 떨어짐
-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도 일반적인 서비스 부문 개발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
-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계획은 앞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
-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변화는 국내에서 시작됨

## [ 제 3 세션 ]

###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 >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장

- 최근의 불행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중·일 3국 간 경제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나 3국 모두 역내 협력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
-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은 유럽 및 북미시장에 추가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중
-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역내 분업구도의 구축이 필요
- 중국이 최소한의 기술축적 및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및 NAFTA와 경쟁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부문을 강조할 필요
- 일본 역시 유럽 및 미국과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여야 함.
- 비교적 소규모 국가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제조업과 기술수준을 조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제블록 구축에 기여

-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은 동북아의 생산 및 소비사슬 내에서 민간부문을 지원할 경제중심으로서의 전략을 (1) 물류 (2) 금융 및 (3) 산업클러스터 측면에서 수립
- 부산, 광양 및 인천의 3개 항을 물류중심지로 발전시켜 중국의 제조업 부문에 부품과 원재료를 조달할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
-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998년 이후 IMF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금융개혁을 추진중
- 동시에, 현재 외환보유고를 가동하여 역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
- 또한 한국은 역내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계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

## 결 론

-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여기에는 외국인 구사능력,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국제사회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장 등이 포함
- 또한 농업부문, 노사관계, 지적재산권의 보호, 기업관행의 투명성 제고 등의 국내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필요

## [ 특별강연 ]

### < 세계평화와 경제번영 >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니아대학 교수

- 평화와 경제번영의 상관관계는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 되어온 이슈로서 개별 국가들, 그리고 세계전체의 경제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평화는 건전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냉전시대 이후 평화배당금 (Peace Dividend)이 대규모 경제번영의 길을 가능케 함.
- 단기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비 지출이 실질 GDP와 노동시장조건들을 개선할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중한 군사비 지출은 민간에 배분되는 희소한 자원을 감소시켜 경제번영을 저해함.
- 평화적인 환경은 건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밑거름을 제공함.
- 과거 냉전시대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발생한 대규모의 재정적자는 걸프전 이후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적절한 재정정책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는 없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축소됨.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율을 통하여 경제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

- 미국의 경우 국방비 지출의 감소와 기타 정부지출의 억제의 결과 장기이자율을 낮추고 경제가 확장되어 전례없는 고용의 증가, 높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번영을 가져옴.
- 경제번영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GDP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GDP외에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보건, 교육, 위생, 안정된 직업 기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 등은 평화적인 시기에 보다 잘 달성됨.
- 또한 보다 균등하고 공평한 소득 및 부의 분배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며 빈곤퇴치와 보다 공평한 소득/부의 분배를 위한 프로그램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남북한 통일은 독일 통일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잠재적 이득을 고려할 때 통일에 따른 이득은 비용보다 큼.
- 통일한국은 중국과 인도라는 대국이 리더십 역할을 하는 평화로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남북한 통일은 아시아와 환태평양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세계평화가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UN의 평화유지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세계화된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에 노력해야 함.